

+ 유제중 · SkyLife 방송운용팀 대리

상황별 사진 촬영 요령

지난 2회에 걸쳐 부족하지만 노출과 심도에 대해서 다루었다.

노출과 심도로만 사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의 중요한 두 축을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노출과 심도를 중심으로 특수한 상황의 사진촬영과 여러 표현 기법을 알아보자.



f/4 | f/5.6 | f/8 | f/11 | f/16 | f/22 | f/2.8 | f/4 | f/5.6 | f/8 | f/11 | f/16 | f/22 | f/2.8 | f/4 | f/5.6 | f/8 | f/11 | f/16 | f/22 | f/2.8 | f/4

이미지 제공 : 소니

촬영모드

촬영모드 설정이란 크게 보면 카메라의 주요기능 중 노출에 관한 기본기능을 설정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촬영을 할 것인가 수동으로 촬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설정기능은 크게 M, A(Av), S(Tv), P 모드가 있다. 이 중 M은 카메라의 기능설정을 수동모드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동모드이다. 다음은 카메라의 촬영 모드 조정 다이얼이다. 기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 설명하는 모드 중심으로 살펴보자.



촬영모드의 종류

- M(Manual) :** 수동모드
- A 또는 Av :** 자동모드 - 조리개 우선 모드
- S 또는 Tv :** 자동모드 - 셔터스피드 우선 모드 또는 타임 우선 모드
- P(Program) :** 자동모드 - 프로그램 모드
- AUTO :** 완전자동 프로그램모드 녹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되기도 함

MODE 설명

M(Manual) : 이것은 수동모드로 조리개와 셔터를 모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노출을 맞추어 촬영할 때 이용한다.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를 기준으로 셔터와 조리개를 적절한 값으로 조절하여 촬영한다. 주로 전문가들이나 중급이상의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모드로 사진가의 촬영목적에 맞는 노출을 사진가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의도한대로 정확하게 사진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A 또는 Av : 조리개우선모드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조리개를 먼저 설정해 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적정노출에 맞추어 셔터스피드를 설정해 준다. 카메라의 회사에 따라 A 혹은 Av로 표기하는데 A는 aperture의 약자이고 Av는 aperture value의 약자이다. 노출량은 카메라에 맡겨 자동으로 사용하지만 사진의 중요한 표현 기능 중에 하나인 조리개를 이용한 심도는 사진가가 직접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드이다.

S 또는 Tv : 셔터스피드우선 혹은 타임우선모드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셔터스피드를 먼저 설정해 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적정노출에 맞추어 조리개를 설정해 준다. 카메라의 회사에 따라 S 혹은 Tv로 표기하는데 S는 Shutter speed의 약자이고 Tv는 Time value의 약자이다. 노출은 카메라에 맡겨 자동으로 사용하지만 사진의 중요한 표현 기능 중에 하나인 셔터스피드를 이용한 동작조정을 사진가가 직접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드이다. 이 모드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셔터스피드를 설정해 두면 노출량에 맞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개를 설정해 준다. 셔터스피드 수치와 달리 조리개 수치의 범위 단계가 적기 때문에 조정될 조리개 수치가 한계 수치를 넘을 경우 노출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P(Program) : 프로그램은 카메라가 셔터와 조리개 모두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노출을 맞춰 주는 모드로 사진가는 셔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노출 조절에 있어 특별히 사용자가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진을 촬영 할 때 많이 이용한다. 완전자동 프로그램 모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노출만이 자동이며 감도나 기타 몇몇 설정은 사용자가 직접 해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상황에 따른 정밀한 노출 조절이 힘들고 사진표현에 중요 도구인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어 사진표현을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렵다.

AUTO(완전자동 프로그램) : 대부분 처음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모드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모드와 같이 카메라가 셔터와 조리개 모두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노출을 맞춰 주는 설정으로 사진가는 셔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Program 모드와 다른 점은 카메라에 노출 등과 관련하여 설정해야 하는 감도(SO)나 플래시 설정 등도 자동화하여 그야말로 손가락에 이상만 없으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얼핏 보면 AUTO 프로그램이 사진촬영에 편리한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카메라의 자동설정이 사진가의 의도를 적절히 발휘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오토모드는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 상황을 판단하고 노출 값들을 결정한다. 하지만 카메라는 단지 기계일 뿐이므로 가장 정확한 노출계는 바로 사용자의 눈이 된다.

그래서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가나 카메라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사용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드이다. 사실 오토모드로 찍은 사진은 본인이 찍었다기보다는 카메라가 찍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포토그래퍼의 자존심을 기르자. 오토모드보다는 수동모드로 본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사진을 찍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촬영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DSLR 카메라에 여러 가지 촬영모드 기능이 있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사진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사진표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많이 발전하여 자동화 영역도 매우 정확해졌고 여러 가지 촬영상황에 따른 적응력도 매우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촬영환경에 대한 경우이며 사진가들이 원하는 촬영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하는 사진을 촬영하려면 카메라의 자동 기능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영역이 많이 존재하며, 카메라보다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카메라를 컨트롤해 주는 수동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카메라를 컨트롤하며 사진 찍기를 원한다면 DSLR 카메라의 촬영모드 설정을 주목하라. 특히, 적극적으로 M(manual)모드를 활용하라. 처음은 힘들지만 사진을 찍는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물이 돋보이는 인물사진 찍기

DSLR을 비싸게 구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가족 또는 친구(애인)를 멋지게 찍어 주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원리를 기억하자. 인물사진의 기본은 인물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인물의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나가 보겠다.

배경을 정리하자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배경은 원경을 골라보자. 다시 말해, 배경의 물체와 인물이 멀지 떨어져 있으면 심도가 알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심도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배경에 있는 물체들은 심도 범위를 벗어나야 심도를 알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배경의 나무들이 인물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무들은 뿌옇게 심도가 날아가게 되고(아웃 포커스), 인물은 상대적으로 시선을 끌게 되고, 인물이 돋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꼭 아웃 포커싱으로 배경을 날린다고 멋진 인물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경과 잘 어우러진 인물 사진이 필요하다면 배경과 인물이 어우러지는데 신경을 쓰고 인물에 시선을 집중되도록 한다. 배경이 어지럽거나 찍으려는 의도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심도를 날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취사 선택은 포토그래퍼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아웃포커싱이 잘된 사진이 멋진 인물사진 이다"라는 편협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인물에 적당한 앵글을 고르자



하이 앵글(High angle) : 높은 각도에서 아래로 찍는 방법이다. 수평촬영보다도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의한 것은 객관성이 강하고 설명적인 사진이 된다는 경향이 있다. 로우 앵글의 표현과는 대조적이며 광각렌즈 사용으로 앵글이 강조된다.

하이 앵글은 아래로 보는 시각임으로 설명적이며 해설적인 표현이 되므로 인간의 감정으로서 우울감이 표출된다. 광범위한 풍경사진에 적합하며 깊은 감정을 강조시킬 수 있다. 눈높이의 앵글은 인간의 감정으로서 친근감, 한때의식, 동정적인 느낌이 표현된다.

그러나, 눈높이의 각도라도 대상에 따라 그 각도의 선정에 주의를 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되면 로우 앵글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중요한 피사체의 특징과 크기를 강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면 속에 단순한 하나의 구성물로 하는 것이다. 하이 앵글로 찍으면 배경의 방해물이 찍히지 않으므로 확실한 화면구성을 이룰 수 있다.

로우 앵글이 지상을 걷는 벌레의 눈이라고 한다면, 하이 앵글은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새의 눈이다. 사람은 무한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진의 세계에 있어서도 벌레나 새가 되고 싶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호기심이 낮익은 광경에도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시키게 될 것이다. 높은 각도, 즉, 카메라를 높은 위치에 두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각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봄으로써 객관성이 강하고 설명적인 사진이 되는 경향이 있다. 촬영방법이나 카메라의 거리와의 관련으로 역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진의 경우에도 수직의 촬영에서는 전혀 상식 외의 형을 발견하게 되며 대상을 패턴화할 경우도 있다. 카메라앵글이 대상의 형을 변화시키는 한 예이기도 하다.

로우 앵글(Low angle) : 낮은 카메라 위치에서 피사체를 위로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이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낮은 카메라 포지션을 취하는 촬영 자세를 연구해야 한다. 광각렌즈가 앵글을 강조시킬 수 있으며, 주관이 강한 사진이 표현된다.

로우 앵글은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임으로 배경의 단순화와 생략을 하는 경향이 되므로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존경, 감복, 공포 등의 느낌을 표현시킨다. 작가의 의도와 내용을 합친 카메라 앵글의 선정이 중요하다. 밝은 하늘이 배경일 경우 할레이션과 반사에 주의해야 한다.

로우 앵글 기법은 피사체에 의하여 전혀 이질의 의미를 지닌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눈의 방향이 수평으로 고정되어 걸어 다닐 때도 정면을 보는 습관이 있다. 눈을 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는 주위만 살피지 말고 위를 보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시각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보통 앵글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보이게 되며, 새로운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로우 앵글의 문제는 피사체에 의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일반론을 피하고 피사체마다 그 효과를 눈으로 보고 체험해 나가야 한다.

정면에서 똑바로 찍는다는 발상을 버리고 약간 앵글을 바꿈으로써 흥미로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피사체의 형이나 구성이 심플한 경우 대담하게 로우 앵글로 찍어 보면 화면구성은 펍 변화되어 보인다. 이와 같이 앵글에 의한 화면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머리에 그리는 화상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고층빌딩을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피사체는 실제보다도 높이 보인다. 카메라를 위로 향해 찍으면 보통 전경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의 높이를 특히 강조시킬 수 있다.

앞은 카메라 위치에서 피사체를 위로 보면서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위로 보면서 걷기란 별로 없다. 카메라도 역시 수평을 중심으로 피사체를 발견하게 되며, 위로 보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보통 앵글로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표현할 것이다. 이 앵글의 문제는 피사체에 의하여(인물과 건물) 전혀 이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 일반적인 것을 피하여 각각의 케이스 마다 그 효과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아이앵글(아이레벨) : 카메라의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피사체를 수평방향으로 잡는 앵글이다. 이 아이레벨은 일상생활의 시선과 같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기 위한 화면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인물을 가능한 한 왜곡시키지 않고 촬영하기 위한 사실주의 화면이나 객관적인 화면에 적합한 앵글이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사진은 그 키에 맞춰서 시선을 끌도록 한다. 귀여운 애완동물의 사진은 그 키에 맞도록 옆드려서 찍어보도록 한다. 또, 어린이의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추고 어린이 주위를 카메라 쪽으로 끌도록 해본다.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 가장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사람의 눈이며, 눈을 보면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경우, 그 키를 맞추어서 눈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는 것이 좋다.

피사체(인물)의 특징을 간파해야 좋은 사진을 만든다

아기 사진을 찍는다면 아기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아기를 어른의 눈높이에서 찍는다면 하이 앵글이 되어 버린다. 과감히 무릎을 꿇고 찍거나 옆드려야 아기 눈높이의 아이앵글이 만들어 진다. 아기 피부는 무척 부드럽고 뽀얗다. 이런 특징(피부의 질감을 나타내는 데는 클로즈업도 권할 만하다. 아기가 웃을 때 무척 예쁜 사진이 된다. 그렇다면 아기의 웃음까지 끌어 낼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피사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피사체의 매력을 모두 끌어내서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법이다.

유명한 인물작가들의 사진들을 보면 그 인물과의 사전 인터뷰, 그리고 많은 시간을 모델과 보내면서 인물을 연구한다.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셔터를 누른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피사체를 다시 한 번 연구하고 관찰한 후에 셔터를 누르는 습관을 길러 보자. 그냥 생각 없이 누르는 셔터질은 '난사'에 불과하다.



야간촬영

부족한 사진실력으로도 멋진 야간촬영을 할 수 있다. 야간 촬영 때 멋진 사진이 많이 나온다. 필자도 초보시절 야간 촬영 때 맘에 드는 사진을 많이 얻은 기억이 있다.

멋진 야경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노출시간에 있다. 야간에는 빛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빛을 많이 받기 위해 노출시간(셔터스피드가 느려짐)이 길어지다 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야경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삼각대

삼각대를 빼놓고는 야간 촬영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긴 노출시간을 사람이 들고 찍을 수는 없는 노릇,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하다. 삼각대 중에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삼각대를 추천한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카메라를 얹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망원렌즈를 끼워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부실한 삼각대로 촬영하다 카메라를 고장 내는 모습을 많이 봤다.

브라케팅(bracketing)

촬영시에 노출에 대한 조금의 오차나 감성적인 노출 과부족을 현상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노출만을 변화시켜 여러 장 찍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조건, 같은 노출로 하여 두 장을 촬영해 우선적으로 한 장만 현상해 보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한 장은 현상시간을 적당히 조절하여 원하는 농도로 얻어내는 방법을 일컬어 '현상 브라케팅'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추가로 35mm 필름의 앞머리 부분 5~6장만을 잘라내어 일차적으로 현상해보고 나머지 부분의 현상시간을 알맞게 원하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을 '클리프 테스트'라고 말한다.

야간 촬영 때 노출계는 별 의미가 없다. 자신의 적정 노출 값을 찾아내야 한다. 카메라의 노출계는 모든 물체를 회색톤의 물체로 가장하고 회색의 반사율을 적용 노출 값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빛 하나 없는 야간(특히 별사진)에는 노출계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노출계는 참고만 하자.

여러 장을 찍어 보자. 노출 값을 다양하게 변경해 가면서 말이다. 조리개를 개방해 보기도 하고, 최소로 조여 보기도 하고, 노출시간을 2~3배 늘려 보기도 하고, 1/2, 1/3로 줄여 보기도 하고 말이다. 똑같은 피사체를 노출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장 찍는 것을 '노출 브라케팅'이라고 말한다.

훌륭한 사진가들이 훌륭한 사진 작품을 만드는 비법 중의 하나가 바로 브라케팅이다. 똑같은 피사체를 여러 번 찍어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큰 수확인 것이다.